

“전남 수목 예술적 가치 홍보… 전통 수목 현대적 확장 모색”

2027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에 장현우 위촉
담빛예술창고 관장 역임… 전시기획·국제교류 경험

‘2027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이끌 총감독에 장현우 전시기획자가 위촉됐다. 지역 문화공간 운영과 국내외 전시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수목의 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전통 수목의 현대적 확장을 모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일 광주청사에서 장현우 총감독 위촉식 수여식을 열었다. 전남도문화재단 이사장인 황기연 행정문화부시장이 위촉장을 전달했다. 장 총감독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 관장으로 재직하며 현대미술 기획전과 융복합 전시, 국제교류 등을 추진했다. 2019년에는 담양국제아트페스

티벌 총감독을 맡았다. 담빛예술창고 관장 재직 당시인 2020년 신관 개관전 ‘ART-HYBRID’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2022년에는 중국 문화예술기관과 국제교류전을 추진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순수미술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중국 루쉰미술학원 왕성렬 예술증서에서도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통합특별시는 장 총감독의 전시기획 경험과 국내외 예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통 수목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고, 비엔날레의 국제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기연 부시장은 “장현우 총감독은 전시 기획 경험과 문화예술 공간 운영 역량, 국내외 예술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라며 전남 수목의 고유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 총감독은 “전남 수목의 예술적 가치와 한국미술 기반의 남도성을 세계에 알리고 전통을 현대적으로 확장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비엔날레로 만들어 세계인이 함께 공감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회째를 맞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내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목포·진도 일원에서 열린다. 수목 작품 전시와 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7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이끌 총감독에 장현우 전시기획자(오른쪽)가 위촉됐다. 지역 문화공간 운영과 국내외 전시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수목의 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전통 수목의 현대적 확장을 모색한다.

장성 청소년·봉사자 4명, 청소년육성유공 표창

청소년 나눔·봉사 실천
“지역사회 성장 등 지원”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관계자와 직업계·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장체험 활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남철도차량정비단, 학생 현장체험 활동

직업계·마이스터고 1~2학년 53명 대상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은 20~21일 전남광주 지역 직업계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1~2학년 학생 53명을 초청, 정비단 현장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20년 옛 광주시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하나로, 학생들이 철도 분야 직무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한국철도공사와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소개, 정비동 견학, 신규 입사 직원들의 취업 경험담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철도의 다양한 직무를 직접 접하고, 현지 직원들의 취업 준비 과정과 실제 근무 경험을 공유받으며 철도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특히 참가 학생들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철도차량 정비 현장을 둘러보며 열차 한 대가 안전하게 운행되기까지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체감했다.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대화 통해 철도 분야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욱 호남철도차량정비단장은 “이번 현장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철도 분야에 이해하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 철도 인재를 키워갈 수 있는 교육·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서 열린 ‘2026 장성청소년문화한마당’에서 청소년동아리 ‘소나무’ 윤채진 회장과 정연우 학생, 장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청소년단 대표 유다연, 1388청소년지원단 임태진 이사가 청소년육성유공자 장성군수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소년동아리 ‘소나무’의 윤채진 회장과 정연우 학생은 독거노인을 위한 연탄봉사 기금 마련과 연탄배달, 장성 평화의 소녀상 관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지구환경살리기 활동 등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꿈드림청소년단 대표 유다연 청소년은 영락안로원 봉사활동과 플로깅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한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임태진 이사는 1388청소년지원단과 장



최근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서 열린 ‘2026 장성청소년문화한마당’에서 청소년동아리 ‘소나무’ 윤채진 회장, 장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표 유다연, 1388청소년지원단 임태진 이사가 청소년육성유공자 장성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성청소년지원터 오늘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청소년안전망 활성화와 ‘기다리 응도 장학금’ 지원,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및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덕진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들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지역사회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지

자가 돼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목포해경, 신임 해양경찰관 21명 현장 배치

해양경찰교육원 1년 신임교육 수료… 경비함정·파출소 근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최근 1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친 신임 해양경찰관들이 최일선 현장으로 발령 받고 첫 근무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경으로 발령받은 제253기 신임 해양경찰관 21명(남 17명, 여 4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9일 전남광주 여수시 소재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해 1년간 신임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공채, 구조, 구급, 해경학과, 전산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신임 해양경찰관들은 각자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서남해 해상 치안 및 안전 관리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신임 해양경찰관들은 최원식 목포해경서장과 간담회를 갖고,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 최일선 부서에 우선 배치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최원식 신임소장은 “1년간 교육원에서 배운 지식과 현장 실무 훈련을 바탕으로 선배 경찰관들의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하



제253기 신임 목포해양경찰관 21명이 1년간 신임교육 과정을 마치고 최근 첫 근무를 시작했다.

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내는 든든한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원식 서장은 “목포해경 가족이 된 것

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주용준 기자 ju60911@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리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어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죽건장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마량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를레인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9월 11일)

48년생 부동산 거래 중간에 제동이 걸릴 것
60년생 배우자에게 청신반야 기본 좋은 하루
72년생 친구와 오해 풀면 불편한 마음 갚는다
84년생 임신양명의 기회가 될 것이다
96년생 혼자 결정하지 말고 신중히 하라
51년생 자녀의 일은 조심스럽게 진행하라
63년생 예상치 못한 금전이 들어올 것
75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고 재물도 얻는다
87년생 문서 관련 좋은 정보를 얻을 듯하다
99년생 유학 도중 어려움이 따른다
54년생 손아랫사람에게 사기당할 우려 있다
66년생 사람에 따라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78년생 조언하기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90년생 뜻밖의 금전으로 일이 호전될 것
57년생 아랫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라
69년생 도난이나 날치기 등에 조심하라
81년생 친구가 찾아와 부탁한 일이 성사된다
93년생 후배와 화합하며 포용력을 발휘하라

49년생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니 자리를 지켜라
61년생 지인에게 부탁해도 거절하지 않을 것
73년생 진취적인 자세로 재능을 발휘하라
85년생 고객을 만나는 장소도 신중히 선정하라
97년생 건전한 오락으로 심신을 달랠 때
52년생 제3자로 인해 옹푼달걀 못 때다
64년생 나서지 말고 아랫사람에게 맡겨라
76년생 서두르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88년생 작은 것을 모아 큰 것을 이룬다
55년생 마음을 꿰뚫어 보는 해인이 필요하다
67년생 길에서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다
79년생 지인의 도움이 수확을 위한 씨앗 된다
91년생 아직 시기상조이나 하지만 괜찮다
58년생 자녀와 관련한 미흡한 점은 보완하라
70년생 지인 덕에 만사 해결되니 경사가 따른다
82년생 부동산 투지에서 기다린 보람있다
94년생 운수가 따를 것이니 확신을 가져라

50년생 미처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 허점 생겨
62년생 사소하게 여겼던 금전 문제가 커진다
74년생 생각지 못한 금전 지출이 생긴다
86년생 친구의 일이 중요하니 관심 가져라
98년생 작은 이익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날
53년생 지인이 새 수입처를 소개해 줄 것이다
65년생 자녀의 일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다
77년생 결국 이루어지지 포기하지 말라
89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이 불어닥친다
56년생 금전 융통 중단하고 면밀히 판단하라
68년생 불가피하다면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80년생 바라던 재물 관련해 좋은 결과 얻는다
92년생 원만한 대인 관계로 기본 일 생기는 날
59년생 부동산 관련 일은 조금씩 필요 없다
71년생 생각지 못한 이익이 따를 수 있는 하루
83년생 사소한 시비가 큰 관재수로 이어진다
95년생 문서 관련해 성취 가능성이 높은 날